



2021년 2월 14일(제1022호) 연중 제6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누가 나병 환자인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병은 나병이라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제치고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타메 타메) 외쳐서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했고, 마을 밖에 나가 동굴이나 움막에서 혼자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느님께 죄를 지어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느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가족과 친한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어 살아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썩어 몽개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께도, 사람에게도 버려진 것처럼, 왕따와 같이 혼자서 너무나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보다 치유가 간절했던 나병 환자였는데, 자신의 모든 고통과 수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아픈 몸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예수님 앞에 겸손되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말속에는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같으면 감기만 걸려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뜻과 내 이익만을 찾을 텐데, 오히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환자는 자신의 전 생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통과 수모를 주님의 마음에 맡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가없이 보십니다. 그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깨끗해집니다. 그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군대라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환자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몸과 영혼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근무 그리고 내 욕심과 게으름이라는 나병에 썩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고는 세상의 일과 내 편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는 게으르다가 내 뜻과 내 이익에 관계되는 것에만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상처받고 쓰러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 혼자라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와 하느님과 관계도 내 주변 선임과 간부, 전우들과의 관계도 다 썩어 몽개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서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찾는다면, 나의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나를 가없이 보시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제 내 삶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욕심과 게으름이라는 나병에 걸려 몽개진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미사 중에 다음과 같이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합시다.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승범(베드로) 신부  
장병세리핌(해병2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레위 13,1-2.44-46

### 회답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제 2 독 시

1코린 10,31-11,1

###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복음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영성제송

마르 1,40-45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네 번째 시한

조선에 대한 확실한 소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베를 주교님에 의해 변문(邊門)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연락원은 외교인 상인들한테서 들어서 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연락원이 조선 상인들에게 물어 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 합니다.

“2명의 외국인들이 3백 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잡혀 다 같이 사형을 받았고, 왕의 통역관 유(劉) 아우구스티노<sup>1)</sup>는 이 불행한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참수된 후 그의 시체가 여섯 갈래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온 가족이 멸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학살되었느냐고 연락원이 다시 물으니까, 그 외국인들은 3개국어 즉, 조선말, 중국말, 서양말과 글에 정통한 자들로서, 나쁜 종교로 조선 사람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학살되었고 조선인들은 사악한 종교를 받아들여 그 서양인들을 추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연락원이 세 번째로 질문하니까 그들은 대답하려 하지 않더랍니다.

그 밖에도 신부님들이 체포된 것은 거짓 신자<sup>2)</sup>에 의하여 밀고된 때문이었다고 연락원이 보고하였습니다. 그 거짓 신자는 신부님들의 얼굴을 익혀 두려고 천주교를 믿고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매스트르 신부님과 저는 12월 20일을 기하여 조선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은 이 계획이 무모하고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조선과의 연락은, 하느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있으니만큼,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만 있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더구나 매스트르 신부님의 출발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어려움이 더해지지 않도록 저와 동행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계속>

1) 유 아우구스티노 : 조선 교회의 밀사였던 성 유진길(劉進吉, 1791~1839)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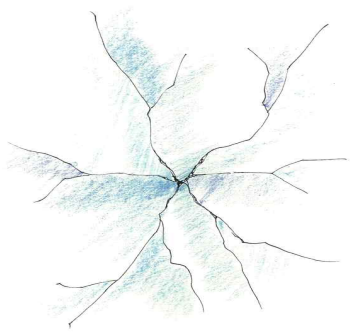
2) 기해박해 때의 배교자요 밀고자였던 김순성(金順性, 요한)을 말함.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 깨진 거울



망쳐 버렸어.  
다 끝나 버렸어.

어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울로

하지만,  
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어찌 무엇인들  
담을 수 있을까.

# 상화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생애를 그린 필사본의 한 부분, 직지 미상  
 대략 1487년~1490년 제작 / 브뤼헤 미술관, 벨기에

전경의 왼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찬란한 빛(후광)이 빛나고 있으며, 오른손을 들어 이들을 축복하고 계신다. 후경에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제는 치유된 나병 환자 한 명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기없는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나기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김은혜(엘리사벳)

##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6주일: 백두산 유희석 신부

### ◆ 교구장 동정

-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화상회의
- 때·곳: 2월 15일(월) 17:00, 군중교구청

###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